

대학 글쓰기 003 분반

Endicott 자율융합 학부

김상우

202210182

평: 전반적으로 교양과목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골고루 갖춘 훌륭한 에세이라고 판단됨. 이하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 한국 대입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논술시험이 필수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 1.서론

대학수학능력 평가 이른바 수능을 쳐본 적이 있는가? 수능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공평하기는 하나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혹은 불공평하지만 변별력은 있다고 생각하나? 오늘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은 수능시험날이다. 이러한 첫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지난 1993년 8월에 시행했다.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로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sup>1</sup> 수능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에서 상징성이 크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오후엔 비행기도 날지 않고 도로에서 경적도 울리지 않는다. 일 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 수능을 위해 학생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주변인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전 국민과 덩달아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 이름이 수능이다. 지난 교육당국은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서술형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22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한 바 있다. 즉, 2028수능에는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수능에 도입되어 2028 대입 제도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sup>2</sup> 그 이유는 더이상 많은 사람들은 수치화 된 점수보다 학습활동이 기재된 학생부 기록을 더 중시하고 한국 대입은 객관식 입시 + 내신 상대평가 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교육에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의 필요성과

---

<sup>1</sup> 황보경기자, Education Policy News,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7>

<sup>2</sup>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4/110433840/1>

한국 대입 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레아 와 같은 논술 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 주었다. 과연 한국의 대입시험과 다른 OECD 국가들과 의 차이는 어떠한지 정말 한국 대입시험에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논술시험이 필수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다.

## 2.본론

### 2.1 바칼로레아 의 구조

우리나라 대입시험인 수능과 프랑스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808년부터 실시된 일반 바칼로레아는 문학계열, 경제, 사회 계열, 과학 계열의 세 계열로 나뉜다. 시험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은 대체로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구두시험은 1년 동안 배운 작품에서 발췌된 텍스트를 설명해야 한다. 합격률은 80%에 육박하며, 20점만점에 10점 이상을 획득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국공립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또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5년 동안 바칼로레아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된다.<sup>3</sup> 여기 까지가 바칼로레아의 기본 구조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수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을 들여보면 확연히 다르다. 먼저 바칼로레아 는 절대평가 이고 수능은 상대평가이다. 바칼로레아 는 대학을 입학하기위한 하나의 자격증이면서 하나의 고등교육의 졸업증명서라고 생각한다. 바칼로레아 는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력과 사고력이 핵심이다. 바칼로레아는 자신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다. 프랑스 국민이 유독 철학과 토론을 즐기는 이유도 학창시절부터 접한 바칼로레아 문제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매년 프랑스 국민들은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는 시기마다 국민들끼리 토론을 하며 예시답안을 유추하거나 대입시험을 치는 나이가 아님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펼치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한다. 바칼로레아 는 일주일동안 하루에 두 시간에서 네 시간동안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수능은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시험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시 되고 수능 당일 도시락판매점 혹은 죽을 판매하는 업소는 새벽부터 일을 바빠 시작한다. 그의 반해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7일동안 집중을 하며 긴장감을 유지 할 수 있고 수능의 비해 비교적 짧은 시험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당 적은 에너지를 소모 할 수 있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2900개 의 주제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 중 객관식 문제는 단

---

<sup>3</sup> 송해준, [바칼레오아,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학연구소, 철학과 문학 31집, 125~128p

하나도 없다고 한다.<sup>4</sup> 필자는 이것을 보고 바칼로레아 시험은 찍기 시험이 아닌 생각을 쓰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 해야 하는 주관식으로, 정답 없는 시험이라고 불린다. 일주일간 치러지는 프랑스 최대 국가시험 '바칼로레아'의 문을 여는 시험과목은 바로 '철학'이다. 바칼로레아의 철학 문제는 매년, 프랑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끈다.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바칼로레아 시험 과정이지만 프랑스 교육당국은 합격률 80퍼센트를 목표로 삼아왔다. 1808년 바칼로레아가 처음 실시된 이래로 1880년대까지 1퍼센트에 불과했던 합격률은 1980년까지도 26.5퍼센트에 머무르자, 프랑스 정부는 낮은 합격률은 곧 교육의 불평등과, 공교육 부실을 상징한다고 판단했다. 바칼로레아 합격률 80%를 목표로 삼은 1989년 이후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공교육의 질을 강화해온 프랑스는 이후, 1995년 바칼로레아 합격률은 65%를 기록했고, 1999년엔 78.3%, 그리고 2014년엔 응시생의 87.9%가 합격했다. 결국, 현재 바칼로레아 평균 합격률, 80%라는 목표달성을 이뤘다. 10명 중 8명이 통과하는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고 한다. 즉 프랑스 학생 80%는 국공립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고 물론 소수이지만 상위 4%인 학생들은 프레빠 라고 불리는 그랑제콜 준비기관인 2년제 교육기관을 입학 할 수 있고 그후 콩쿠르 라는 그랑제콜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 후 합격하면 그랑제콜 이 라 불리는 3년제 프랑스 최고 교육기관에 상위 2.5% 학생들이 입학 할 수 있다.<sup>5</sup> 물론 콩쿠르에서 계속 떨어질 경우 일반대학3학년으로 편입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최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마다 학비 편차는 크지만 국립 그랑제콜 일 경우1년 등록금이 40~2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또한 일반대학일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 프랑스는 초등학교~대학교 까지 무상교육을 해준다는 말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교육시스템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보았을 때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잠만자고 출석률만 채우고 실질적인 공부는 많은 돈을 지불하여 사교육으로 하여 높은 성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한국과는 달리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하고 바칼레로아 시험을 불합격 할 시 다시 고등 교육을 들어야하는 프랑스 대입시험과 교육과정은 한국 대입시험과 교육과정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의 공교육은 매우 부실하며 치솟는 사교육에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 2.2 선진국의 대입시험과 바칼레로아 의 도입 문제점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은 얼른 한국에 바칼로레아 를 도입하면 한국의 교육과정도 개편되고 공교육 질 도 상승되어 공정하고 수준 높은 대입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지금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일단 바칼로레아 는 200년 넘는 역사가 있고 시험 채점을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한다. 그렇기에 공정함을

<sup>4</sup> 뉴스 EBS, <https://www.youtube.com/watch?v=aep-xuua9xk>

<sup>5</sup> tvN D ENT, <https://www.youtube.com/watch?v=WtWVt7wpJwg>

위해서 학생들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채점관도 약간의 운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바칼로레아 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와는 달리 깊은 역사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논 할 것 이다. 하물며 프랑스 현지에서도 바칼로레아 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쓰는 '통과 의례'로 전략했다는 비판 까지 나온다.<sup>6</sup> 그 이유는 바로 불공정 문제이다. 한국에선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만 보도됐기 때문에 마치 교육적 이데아를 이룬 시험이라 착각하지만, 정작 프랑스에서 이 시험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역을 치룬다고 한다. 실제로 바칼로레아 도 점수제가 포함된 엄연한 정성평가 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고 한다. 즉, 한국의 수시처럼 프랑스 내 에도 공정성 논란이 많은 시험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 을 고려 하였을 때 현재 당장 바칼로레아 와 같은 시험을 대입시험에 집어 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핵심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바칼로레아를 치르는 프랑스와 아비투어를 치르는 독일은 대학이 평준화돼 있어서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독자들이 생각 했을 때 평준화가 안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바칼로레아 와 같은 시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국가들의 대입시험은 어떠할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표준화된 대입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수능처럼 객관식(선다형) 시험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미국스웨덴.멕시코.터키.칠레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 국가는 논.서술형 대입시험이 대세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Baccalaureate)와 독일의 아비투어(Abitur), 영국의 에이레벨(A-level) 등이 대표적이다.<sup>7</sup> OECD 36개국 중 5곳 빼면 논.서술형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작정 선진국의 방식을 따라가자는 말이 아닌 우리의 수시시험의 공평성과 대학평준화, 시험 채점관 등 안전하게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알아보았음에도 필자는 프랑스 바칼로레아 와 같은 논서술형 시험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핵심이유는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의 생각, 의견, 가치관을 묻는 "꺼내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능은 여전히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 2.3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구조

과연 대한민국 교육시장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위와 같이 필자는 바칼로레아 가 도입 될려면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좋은 교육과정의 바탕으로

<sup>6</sup> <https://namu.wiki/w/%EB%B0%94%EC%B9%BC%EB%A1%9C%EB%A0%88%EC%95%84>

<sup>7</sup> 이데일리, 신하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2329904&mediaCodeNo=257&OutLnkChk=Y>

<sup>8</sup>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한 제안 IB를 말한다, 창비교육, [책리뷰]IB를 말한다 - 1부|작성자 Jada

바칼로레아 가 이어 질 수 있는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독자들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대해 알고 있는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상대로 IB교육을 실시한다고 연락이 갔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sup>9</sup> 4차 산업을 생각하고 협동하는 실질적인 리더를 양성하려면 지금의 교육체제는 전면수정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IB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내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IB교육이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 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 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제이며, 2021년 1월 기준 세계 161개국 5,464교 에서 운영 중이다. IB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본 기관은 학교,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엄격한 평가 시스템 갖춘 도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IB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이 적 극적이고 공감할 줄 알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 학습자가 될 것을 장려한다.<sup>10</sup> 독자들은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 FB(프랑스 바칼로레아) 교육 의 차이가 궁금할 것이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지사를 둔 민간 국제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FB는 프랑스 교육부가 주관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는 프랑스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개발 운영하지만 국제 바칼로레아 는 국적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B는 국제 대입 과정 개념으로, 스위스에 본 부가 있고 영국에 채점 본부가 있으며 대륙별로 지사가 있다.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50년간 개발 운영해온 교육과정이자 시험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바칼로레아 와 차이가 있다.<sup>11</sup>

## 2.4 IB교육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이러한 IB교육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IB에서는 "진짜 공부"가 이루어진다. 진짜 공부란 지식을 그 의미로써 깨닫고,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 만의 생각을 키우고, 그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학습자로서 성장하는 일이다. 학습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공부라는 것을 어린 시절 어른이 되기 위한 인내와 고통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일이기엔 평생 배우고 생각을 키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짜 공부" 를 시키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가짜 공부" 를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학업 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시험인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

<sup>9</sup> 꾸기의 책방, <https://blog.naver.com/followmymind77/222922166550>

<sup>10</sup>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ib/main.do>

<sup>11</sup> 이해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 한국형 바칼로레아 시작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Y4Adoho\\_k](https://www.youtube.com/watch?v=LPY4Adoho_k)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나타나는 교육 국제비교지표를 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수하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력을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다. 어릴 때 우수했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학생과 성인의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가짜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 대학에 갈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마치 공부에서의 해방이라도 인식되는 것의 결과일 것이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등학생 때 까지만 해도 정말로 대학에 가면 노는 건 줄만 알았을 것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푸룻푸룻한 10대의 시간을 좁고 답답한 독서실 칸막이 안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성인의 시기는 그것에 대한 보상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진짜 공부는 칸막이 안에서 기계처럼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짜깁기 된 참고서가 아닌 생생한 원자료들을 탐색하고 보고 동료들과 어른들과 활발히 대화해야 한다. 진짜 공부라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성장해간다는 것이 느껴 지기 때문에 즐겁고, 이러한 즐거운 경험은 이를 성인이 되어서도 학습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다.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100세 시대에는 학습을 멈추면 금방 도태되기 십상 이고, 따라서 공부의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12</sup>

둘째, IB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한 문제인 사교육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가짜 공부를 대체 어디서 하는가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아이의 시간과 부모의 돈을 함께 낭비하고 있는 곳이다. 사교육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라고 생각한다. 상대평가체제는 그냥 우수하게 잘하는 것이 아닌 내 바로 앞 그라고 양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인 공교육을 넘어서 자꾸만 추가교육을 받게끔 유도한다. IB교육은 교사마다 다루는 교재와 학습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이 개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B교육도 학습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학습수준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더 유발한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당연히 IB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사교육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교육도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고 사교육을 통해 수익을 벌던 인강 업체 들과 학원강사들도 분명히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IB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렇지만 IB교육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사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며 사교육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IB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뷰를 보면, IB에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이 속도에 따라 일대 일로 섬세히 도와 주기 때문에 개인과외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IB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정업무가 대폭 감소되고 가르치는 업무만 99% 남기 때문에 학생 한 명

---

<sup>12</sup> 송해준, [바칼레로아,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학연구소, 철학과 문학 31집, 125~128p

한명에게 교사가 개입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가 완전히 교사의 재량이므로 결국 과외선생님이 아닌 학교선생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인물 이라는 것도 금방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sup>13</sup> 이렇게 바칼로레아 가 도입되기 위한 발판인 좋은 교육과정인 IB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필자는 IB교육이 경기도, 제주도, 대구의 몇몇 학교만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고 그후에 바칼로레아 시험이 대입시험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론

교육의 목적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있다.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라고 마틴 루서 킹이 말하였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마틴 루서 킹 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OECD 국가중에서 수능과 내신 등 모든 입시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 유일하다고 한다. 30년된 객관식 시험은 수명을 다하였고 바칼로레아 처 럼 수능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발 맞춰 현재 인기 많은 인터넷 강사인 일명 일타 강사들의 몇몇은 이러한 수능은 도태될 것이며 본인들은 발 빠르게 행동할 것이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변화하는 대입시험을 은퇴 후 먼저 준비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2028년부터 논술형 수능이 시작하고 현재 학생들은 입시판과도기에 걸쳐 있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 혹은 나이가 들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에 맞는 고정된 답을 배워야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정된 답이 아닌 각자의 답을 , 찍기 시험이 아닌 생각을 적는 시험을,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었냐 가 아닌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냐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칼로레아 철학부분 시험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위의 질문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것에는 가치가 존재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감옥속의 죄수라도 할지라도 말이다.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과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 하늘을 물들은 저녁노을, 봄에 잠깐피는 벚꽃, 가을에는 낙엽, 매달 열리는 꽃축제들, 시작하자마자 큰소리로 끝나 버리는 화려한 불꽃놀이 까지 이것들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즉 가치가 있기에 그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바칼로레아 를 벤치마킹한 논술형 시험이 존재한다. 그것이 대입 논술형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바칼로레아 와 같은 시험이 대입시험에 필수로 도입되기는 무리이지만 IB교육이 도입되고 대한민국의

---

<sup>13</sup> Lanie, IB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교육과정학 에세이1 08화, <https://brunch.co.kr/@lanie/44>

수시개편과 IB교육의 도입으로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사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바칼로레아 와 같은 시험을 공정하게 채점 할 수 인원이 충당 되었을 그 시점에 바칼로레아 와 같은 시험이 한국 대입시험 에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바칼로레아 시험 중 제일 본인의 생각을 지혜롭게 적어야 하는 철학부분은 필수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황보경기자, Education Policy News,  
<http://www.edupo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7>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4/110433840/1>

송해준, [바칼레로아,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학연구소, 철학과문학 31집, 125~128p

뉴스 EBS, <https://www.youtube.com/watch?v=aep-xuua9xk>

tvN D ENT, <https://www.youtube.com/watch?v=WtWVt7wpJwg>

<https://namu.wiki/w/%EB%B0%94%EC%B9%BC%EB%A1%9C%EB%A0%88%EC%95%84>

이데일리, 신하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2329904&mediaCodeNo=257&OutLnkChk=Y>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한 제안 IB를 말한다, 창비교육, [책리뷰]IB를 말한다 - 1부|작성자 Jada

꾸기의 책방, <https://blog.naver.com/followmymind77/222922166550>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ib/main.do>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 한국형 바칼로레아 시작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LPY4Adoho\\_k](https://www.youtube.com/watch?v=LPY4Adoho_k)

Lanie, IB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교육과정학 에세이1 08화,  
<https://brunch.co.kr/@lanie/44>

